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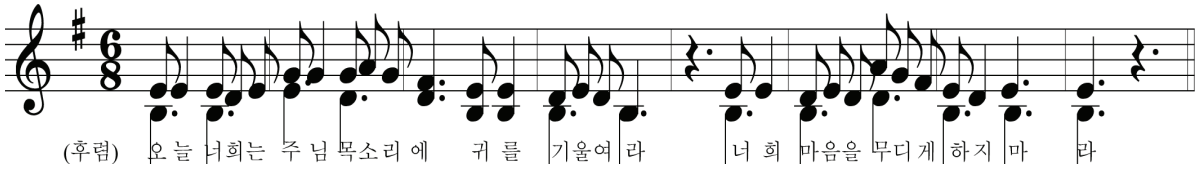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신부 : 이효언(펠릭스) (felixlhu@yahoo.com) 보좌신부 : 박창엽(파비아노) (fabiano@hanmail.net)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30
Saturday	PM 8:00	축성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Sunday School 11:30am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Youth)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67 성전 오른편에서 18 주님을 부르던 날
제 1독서 : 신명 18,15-20
화 답 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독서 : 1코린 7,32-35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복 음 : 마르 1,21ㄴ-28
봉헌성가 : 220 생활한 제물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송 :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성체성가 : 169 사랑의성사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파견성가 : 66 주의 백성 모여오라



전례 봉사자

일 시	미사해설	제 1독서	제 2독서	복 사	성체 분배	다과봉사	헌금봉사
1월 31일(토요특전) 8시	권혁석	김대홍	박남미	주성현 이혜인 이라나 오지원 오정원	나선호		
2월 1일(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김현직 이인섭	이철규	김정애	염정관 이태영 이병헌 이 규 박준렬 최민서 이세진 김영진 고동후 오승민 오채빈 이기남	장현기 차주삼 김석현 김정용	Lansdale	Lansdale
2월 3일(화) 8시	홍현표	허성희		강주은 이재선 이재욱 김재경 홍유진			
2월 5일(목) 8시	이인섭	이현숙		성재용 주성현 함대희 함재희			
2월 7일(토요특전) 8시	방남분	김용식	김향숙	조영진 최민서 조봄이 최진아 김현수	강남운		
2월 8일(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변용천 김항규	이진용	노원진	이 규 김영진 성재용 염정관 김명준 신정우 이재선 변윤수 이대근 이효근 박유민 오채빈	차주삼 나선호 김근회 강호신		

학부모 쿠폰 판매(10시 미사 후) 2월 : 5,6학년 **3월** : 7,8학년 **Van 봉사** 2월 1일 : 이인섭 8일 : 김완수 15일 : 박범수 22일 : 박병학

구역별 동절기 야간 방범 Upper Dublin : 2월 3일(화) Ft. Washington : 2월 5일(목), 7일(토), 10일(화), 12일(목),
2월 18일 (재의 수요일) : 사목회 North East & Oxford : 2월 14일(토), 17일(화), 19일(목), 21일(토)

생명의 말씀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 법, 겸손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회당에서 악령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의 세력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만 정의로운 것처럼 정의를 외칩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랑을 외치며 교회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을 침소봉대합니다.

'교황님이 다녀가셨는데 왜 한국 교회는 바뀌지 않느냐?'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바뀔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수도 없이 탈바꿈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난받고 죽음을 겪으셨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바뀌지않고, 다른 사람더러 바꾸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자신부터 사랑을 실천해야만 사랑의 교회가 됩니다. 자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더러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악령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운동을 하는 어느 사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자처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수녀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영성의 대가이신 십자가의 성 요한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끈질기게 요청하는 바람에 요한 신부님은 수녀님의 체험을 글로 적어 보내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느냐? 이것은 영의 체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비를 체험한 후 저술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의 신비에 비하면 자신이 언급한 하느님에 관한 모든 진술은 '지푸라기와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신비체험의 영적 식별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자신이 먼저 합시다. 그리고 겸손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악령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조규만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교회상식 · 교리상식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피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느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분께 굳건히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이 끝까지 돌봐 주신다고 가르치셨는데, 이를 몸소 보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요한 14,6)이라고 하셨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군나 예수님을 따라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당시 권력을 쥔 지도자들은 몹시 불쾌해했다. 또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자신들이 권력을 잃을 거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시를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비난했다.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자신들을 반대할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여 그분이 사람들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 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혀 내지 못했다. 분명 예수님은 하느님에 관해 잘못 가르치거나 악행을 저지르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처벌하기로 했고 예수님을 붙잡아 온갖 방법으로 모욕하고 고문했지만, 그분은 굴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런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뜻밖의 불행을 겪더라도 반드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겨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사랑에는 폭력이나 죽음조차 꺾을 수 없는 큰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과 같은 무거운 죄에 관한 재판은 로마 총독만이 집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셨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혹독한 고문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다. 예수님은 처형당하는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성경에는 그곳이 '골고타'라고 하는데, 이는 '해골 터'란 뜻이다. 어느 성당에서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 신자들은 이 '발자취를 따라 혼자서든 여럿이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바친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의 밀고로 붙잡히셨다. 그 밀고자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행동을 무척 부끄러워했고, 크게 후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셨을때에 두려워서 도망쳤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중에서야 자신들의 행동에 무척 마음 아파했다. 그들은 그렇게 뉘우친 뒤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데 목숨을 바쳤다.

한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어머니 마리아, 사랑하는 요한 사도, 몇몇 여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전한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공지사항 · 공동체 소식

♡ **2015 세계 가정대회 개최:필라델피아 컨벤션센타**
일시 : 2015년 9월 22일(화)-27일(주일)
대주제 : Love Is Our Mission, The Family Fully Alive
(사랑은 우리의 사명, 온전히 살아있는 가정)
2월 주제 : Two become one

♡**박창엽 파비아노 신부님을 위한 기도 봉헌**
박창엽 파비아노 신부님께서 2월 10일(화) 임기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가십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송별 미사 : 2월 8일(주일) 교중 미사 후 7시, 10시 미사 후 전신자 국수 제공
* 2월 10일(화) JFK 공항에 함께 가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 오늘(2월 1일)까지, 선착순
출발 : 2월 10일(화) 6:30am, 성당에서 출발

♡ **이중헌 요셉 보좌 신부님 환영합니다!**
이중헌(요셉) 보좌신부님께서 2월 16일(월)에 본당에 오십니다. 새로 오시는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바랍니다.
환영 미사 : 2월 22일(주일) 오전 10시

♡**주님 봉헌 축일 초축성**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1년 동안 쓸 초를 축성합니다.
초 축성 : 오늘(2월 1일) 10시 교중 미사

♡ **성시간** 2월 5일(목) 저녁 미사 후

♡**청년 미사 안내**
2월 8일(주일)과 2월 15일(주일) 청년 미사가 없겠습니다.

♡**성지 가지 회수**
성지 가지를 2월 15일(주일)까지 가져 오셔서 성당 뒤에 마련된 Box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 미사** 2월 18일(수) 저녁 8시
2월 18일(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날 교회는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머리에 얹는 예식을 합니다.
* 재의 수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을 함께 지킵니다.

♡**십자가의 길**
사순절 동안 매 주 목요일 7:30pm

♡ **설 합동 위령 미사**
2월 19일(목) 저녁 8시 미사는 우리의 조상, 친지, 은인들을 위한 합동 연미사로 봉헌됩니다. 차례 예식과 연도가 있습니다. 미사 예물은 제대 앞에 준비된 바구니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연도책, 미사예물

♡ **성모회 모임** 오늘(2월 1일) 8:30am, 평화방

♡ **재속프란치스코회 모임**
일시 : 2월 8일(주일) 8:15am, 온유방

♡**2014년 Tax 보고용 영수증 발급** : 사무실

♡ **특별헌금- Catholic Charities Appeal**
다음 주일(2월 8일) 미사 중에 Catholic Charities Appeal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성전 보수 도네이션** : 김요안 $1,000.-

■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3.830.- **특별헌금** $1,209.-
교 무 금 $2,735.- **감사헌금** 김향숙 $100.-

강경주(1)	최영자(1)	박희순(1-2)
황 철(1)	박종순(2)	최명순(1-3)
서의수(1)	이길환(2)	이원자(1-2)
나선호(1)	윤재승(12)	인성한(1-3)
김명호(1)	김봉명(1-2)	호선구(1-2)
윤재승(1)	정인선(1-2)	윤인구(1-2)
심희선(1)	한희우(1-2)	박달웅(1-2)
이연복(1)	송운낙(1-2)	이행복(1-2)
김현직(1)	김용석(2-3)	박준업(2-3)
권영민(1)	이복연(1-2)	윤명환(9-12)
이은우(1)		

미사 지향

		지향자	봉헌자	지향 내용
특전	연	허매실	양헬레나	영원한 안식
	생	나선호(펠리치아노)		축생일, 주님 축복
오전 7시	생	박달웅(바오로) 가정	조인순	가정 축복, 건강
오전 10시	연	김동호(프란치스코)	김토마, 권마리아	영원한 안식
		이봉근(요셉), 황경숙(루시아)	이의정	
		한승엽	그레이스 김	
		고독희	고명자	
		유점임	조수점	
		이재수(아오스딩)	정인혜	
		이재복(니콜라오)	이연복	
		이백규, 김백순		
		이윤구(루카), 정옥분(수산나)		
		조성희	이춘섭	
		김보필(요나단)	김도호	
		강광희(다두), 박복순(마리아)	강남운	

		지향자	봉헌자	지향 내용
오전 10시	생	도하상(바오로)	하글라라	주님 축복, 자비, 은총
		도중원(라우렌시오) 가정		
		심춘(마리아)	정우 회원	축생일, 건강
		정귀자(아가다)	일치의 모후 Pr.	축일 축하
		이인노(말티나)		
		Catherine & Thanh		가정 축복, 건강
		방남분(아가다)	사목회	축일 축하, 영육간 건강
		허삼욱(프란치스코)	허수원	주님은총, 빠른 쾌유
		김태숙(데레사)	김경애	
		윤영주(아가다)	윤인구	주님 축복, 건강
		이준영(멜키올) 가정	이달성	건강, 소원
		전 안나회원들	안나회 임원	영육간 건강
		이정주(말티나)	친구들	건강 회복
		이옥란	이달성	
		이인복		
		김경애(마리아데레사)	이서영	건강 쾌유
		유승경(마리아)		쾌유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2월 1일	**브리짓다** : 강승희	**2월 4일**	**제인** : 인지연 장진실
2월 5일	**아가다** : 이복순 김정은 방남분 정귀자 이순겸 이영숙 서광분	**2월 6일**	**아만도** : 유효상
2월 7일	**테오도로** : 신장우		

♡ **구역 모임**

Jenkintown : 2월 1일(주일) 3:00pm	최농자 자매댁	215-576-1858
North East & Oxford : 2월 6일(금) 7:00pm	신영민 형제댁	267-242-0202
Lansdale : 2월 15일(주일) 4:00pm	김상천 형제 댁	215-631-1719
Ft. Washington : 2월 11일(수) 7:30pm	구역장 댁	267-808-4499
Center Square : 2월 8일(주일) 5:00pm	노보루	267-984-9490
Warrington : 2월 8일(주일) 1:00pm	아리수(구가야)	267-574-6136

♡ **주일학교 봄학기 개학**
일시 : 오늘(2월 1일) 10:00am Class
11:30am Mass

♡ **한글 공부방 봄학기 등록 및 개학**
일시 :오늘(2월 1일)
등록 : 오늘(2월 1일) 10시 미사후, 친교실
등록비 : 한 학기 $70.– 점심: 1명 $50.–,
2–3명 $100.–, 4명 이상 $150.–

♡ **애덕의 모후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 오늘(2월 1일) 11:40am, 사랑방

♡ **그리스도의 모후 꾸리아 모임**
일시 : 2월 8일(주일) 8:00am, 사랑방

♡ **성물방 소식** 청국장 판매

♡ **주일학교 학부모 대표 모임**
일시 : 오늘(2월 1일) 10시 미사후, 진실방

♡ **아프리카 말라위 후원회 소식**
팀장 : 박영진(마리아), 노원진(프란체스카), 박금숙(루시아),
김성호(이냐시오), 박순완(수산나)

♡ **성경 읽기표 제출자 명단**
강남운 강명숙 강영숙 공재순 구광모 길효영 김경애 김금숙 김기성
김대홍 김성호 김순덕 김순옥 김영숙 김용석 김웅옥 김정애 김정희
남원희 박경자 박금숙 박정화 박종선 방남분 방무성 방순종 변선균
소미숙 오기숙 이경주 이경화 이광수 이규선 이달성 이상희 이서영
이영자 이영호 이옥숙 이월순 이인노 이인자 전애숙 정귀자 정선화
정순자 정진희 정태순 조월선 조정문 주명자 최순임 최영숙 한희우
허삼욱 허수원 허향연 홍길자 총 58명

정영자 치과
☎ (215)635-0570
335. W. Cheltenham Ave
Melrose Park, PA 19027

옷수선전문
저렴한 가격
세탁 공장, 드랍스토어, 개인 일감도 받습니다.
방아가다 267-255-9052

평화건설
박 범 수 (요셉)
신축/증축/리모델링
267-210-7336
항상 평화가 가득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김홍길
회계사무소
(215) 635-7536

김승원 카이로프랙틱 척추신경의료원
Ambler
(215)641-9808
Cheltenham
(215)276-1976

대우정육
◆ Fresh Meat ◆ Lunch Meat
◆ Deli Supply ◆ Frozen Seafood
(215)467-4591-4
3121 S. Lawrence St. Phila, PA 19148

패밀리 상경추 전문
척추신경병원, 한방병원
원장: 윤진모, D.C., L.Ac.
상경추 척추신경 전문의, 한의사
(215) 782-2001

윤상원 치과
치아 이식 수술 및 보철
(610) 356-9424
8 St. Albans, Newtown Sq.

필라 한인 상조회
십시일반,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장례비용을 준비하세요
Tel:267-241-3421

장우균 CPA 공인회계사
(215)635-6463
www.cpachang.com

그레이스 김 보험
오바마 케어
메디 케어
610-275-6321

광고 게재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에 관한 모든것
김기호 예의원
KIM FUNERAL HOME
215.424.0404

Farmers 보험
자동차/주택/사업체/생명
김상돈 (215)635-5500

공인회계사(CPA)
박희중, 고현우
마재진 E.A.
(215) 782-2121

빅센트릭 가전제품
창고판매 => 시간, $$ 최대 절감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 –
무료배달, 판매세 없음, 무이자 할부
443.250.8094/sales@BigCentric.com
151 Edgemoor Rd, Wilmington, DE